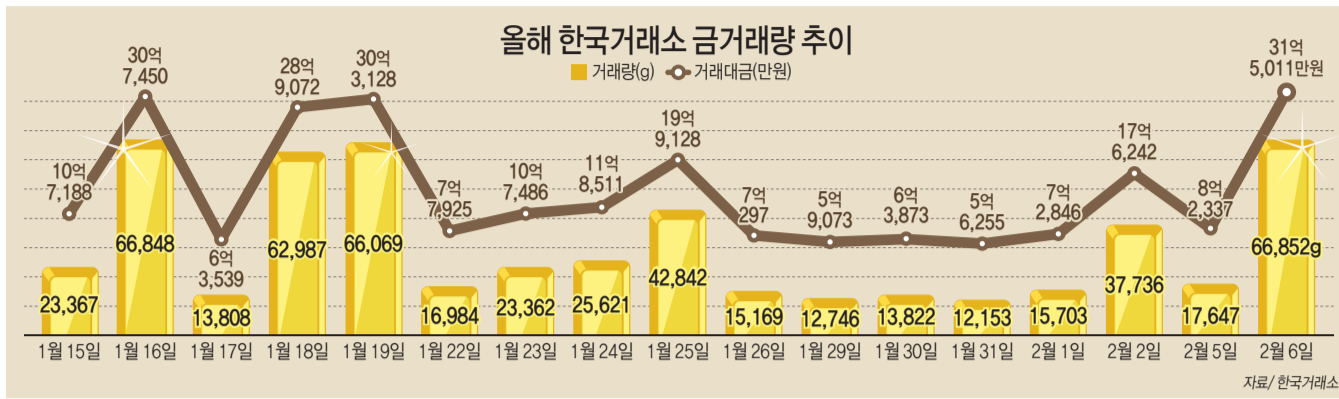


美 금리인상 우려에 MMF 등 초단기 자산에 자금 몰려

코스피 하락... 채권·달러 선호현상
MMF설정액 지난 12월 이후 최대
KRX 금 거래량 6만6852g 달해



다. 1월 4대 시중은행의 외화예금은 496억500만 달러였다. 지난해 9월 말 404억7100만 달러보다 늘었다.

원·달러 환율은 최근 1100원 선을 넘나 들고 있어 외화 수요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대신증권 임혜윤 연구원은 “원·달러 환율 상승은 미 국채금리 상승 폭 확대, 임금 상승압력 가중에 따른 인플레이션 기대 강화로 연준이 예상보다 빠르게 통화정책 정상화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 미국의 핵 태세 보고서(NPR) 공개로 북핵 리스크가 재부각된 점도 있다”면서 “위험 자산 선호가 급격히 약화됐고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강해지며 원화 약세압력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투자금융(IB) 업계에서는 시장이 진정되기 전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 달러화, 일본 엔화, 금 같은 안전자산 쪽으로 투자가 몰릴 것으로 본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주식 및 채권시장이 받을 충격의 크기가 다른 데다 유럽과 일본 등의 통화정책 방향도 변수로 꼽힌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 인상에 속도를 낼 것이라 전망이 나오면서 안전자산으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코스피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단기 투자자인 머니마켓펀드(MMF)에 몰려온 돈이 몰리고 전통적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채권, 달러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MMF 설정액은 5일 현재 125조348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29일 97조원대까지 떨어졌던 MMF 설정액이 지난해 12월 이후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이다.

MMF는 단기 자금 투자처이자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 투자자들이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파킹(돈을 맡기는)하는 상품이다. 투자자들이 MMF에 자금을 몰아둔다는 것은 그만큼 주식을 비롯한 위험

자산을 꺼린다는 뜻이다.

미국발 금리 인상 우려가 투자자들의 마음을 움츠러들게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증권사 관계자는 “증시가 ‘패닉’ 수준으로 곤두박질 치면서 선뜻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가 없다. 일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지만 이 또한 제한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증시가 폭락하던 지난 6일 한국거래소 KRX금시장에서 거래된 거래량은 6만6852그램(g)에 달했다. 지난달 16일을 제외하면 올해 들어 가장 많은 거래량이다. 거래대금도 31억5011만원에 달했다.

펀드시장에서도 투자자들의 ‘안전 제일’ 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6일 기준으로 최근 한 달 간 국내 채권형펀드는 1424억원의 자금이 들어왔다. 같은 기간 해외 채권형펀드에서는 4270억원이 이탈했다. 금리 리스크가 부각된 최근 1주일간에도 국내 채권에서는 174억원이 유입됐고, 해외 채권형에서는 1806억원이 빠져나갔다.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의 고용지표가 ‘불서’가 됐다. 1월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2.9% 올라 8년여 만

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도 트럼플레이션(트럼프+인플레이션)과 맞물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와 횟수를 늘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시장에서는 미국이 추가로 4차례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한·미 간 금리 역전이 불가피해진 셈이다.

지난해 12월 이후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에 달러를 찾는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 중 달러 예금은 707억달러였다. 2016년 말 대비 211억 달러(42%) 늘었다. 1월 분위기도 비슷했

“가상화폐 다단계 사기 온상... 투자자 보호 인프라 구축을”

암호화폐 소비자 보호·규제방안

“정부의 대응 지연 투자피해 키워
취급업자 규제방안 먼저 마련해야”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 폭락으로 ‘비트코인 블루(가격 급등락에 따른 우울감)’가 문제로 떠오르면서 소비자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수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암호화폐 소비자 보호와 합리적 규제방안 모색’ 포럼에서 “국회에서 입법을 준비 중인 내용은 대부분이 가상화폐 취급업자와 관련된 부분”이라며 “투자 위험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화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정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가상화폐대책TF가 주최한 ‘가상화폐 제도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토론회(사진)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주최한 ‘암호화폐 소비자 보호와 합리적 규제방안 모색’ 포럼이 열렸다. /유재희 인턴기자

욱 자유한국당 의원의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가상화폐와 관련해 접수된 상담건수는 2016년 6건에서 2017년 99건으로 급증했고, 지난달 한 달간에만 14건에 달했다.

안 교수는 “실제 가상화폐를 악용한 다단계 사기범죄가 극성이지만 피해사례 건수 등 이용자 피해구제 관련 정보의 집

계나 공개도 미흡한 상황”이라며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성질 합의가 되어있지 않아 피해 발생시 소비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인프라도 미비하다”고 역설했다.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의장 역시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개념정리부터 과세정책 등을 명료화해야 누구를, 무엇을 규제할 것인가가 뚜렷해 질 것”이라며 “현재는 자금 세탁방지차원과 다단계 사

기방지 차원의 규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대응이 미숙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원종현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가상화폐가 나온 지 10년이 지났지만 정부의 대응이 지연되면서 전국민적 투기과열과 투자자 피해를 키운 측면을 인정해야 한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

해서라도 가상화폐 취급업자에 대한 규제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날 열린 자유한국당 가상화폐대책TF가 주최한 ‘가상화폐 제도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는 성토도 이어졌지만 블록체인 기술 등의 경쟁력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거래소 폐쇄와 같은 극단적인 대책들을 정부 내부의 조율도 없이 선불리 내놓으면서 시장을 왜곡시키고,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며 “비정상적으로 가열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통제는 필수 불가결하지만 자정기능을 살려낼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와 지원 방안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상화폐대책TF 위원장인 추경호 의원은 “가상화폐공개(ICO) 전면금지, 실명제 등 정부의 전면적 규제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는 스타트업 등 벤처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안상미 기자-유재희 인턴기자 smahn1@metroseoul.co.kr

빛 내 투자하는 ‘레버리지 투자’ 증시 변동성 키웠다

코스닥 장 초반 874.48까지 상승

사상 최대로 늘어난 레버리지(차입) 투자가 한동안 주가 상승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 분석이 나온다. 레버리지에 대한 부담감이 증시 상황에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코스닥은 장 초반 874.48까지 상승했다가 장 마감 직전 829.96포인트로 장을 마감했다. 무려 5% 이상의 변동폭을 보였다. 코스피 역시 2481.20으로 시작한 지수가 오후 들어 낙폭을 키우며 2396.56에 마감했다. 지난 6일에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가 장 초반 40% 넘게 급등하기도 했다. 증시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키우고 있어 증시 향방에 대한 긴장감이 가득하다.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증시 변동성도 크게 확대됐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가 장중 변동폭을 1167포인트까지 키우면서 변동성지수(VIX)는 50포인트를 상회했다. 이는 금융위기가 들이닥쳤던 2008년 12월과 중국 경기침체 우려가 확대됐던 2015년 9월 이후 최고치다.

한국과 미국의 증시 변동성이 확대된 데는 빛 내 투자하는 이른바 ‘레버리지 투자’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9년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증시 호황이 겹치면서 투자자들이 돈을 빌려 과감한 투자를 해왔기 때문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금리 인상이 우려되더라도 경제 호황 속에서 이러한 하락장이 연출되는 상황은 쉽게 이해하기 힘들다”며 “돈을 빌려 투자

한 사람들의 불안감이 증시 변동성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의 마진 데빗(Margin Debt·주식에 투자하기 위해 빌린 돈)은 국내총생산(GDP)의 3.4%까지 치솟았다. 정보기술(IT) 버블이 절정에 달했던 2000년 3월 말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마진 데빗 규모가 2.3%였고,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6월 말에는 2.5% 수준에 불과했다. 그 어느 때보다 레버리지 투자가 급증한 상황이다.

한국의 신용거래용자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지난 5일 기준 해당 자금은 11조4248억원을 넘어섰다. 1년 전(7조309억원)과 비교해 63.1% 늘었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

제53차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 경매교육

400,000원 → 60,000원 (85% 할인)

- (평일반) 2018년3월7일~3월29일
매주 수, 목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 총8강
- (주말반) 2018년3월10일~3월31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30분 / 총8강
- 현장교육 (별도옵션) : 300,000 → 130,000원
3월 18일(일), 3월 25일(일), 3월 27일(화)

www.leadersauction.com

교육문의 02)521-9111 (강남역 5번출구)